

2023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8.29.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5	2	15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4	-	1	12	-	12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2	-	-	12

다. 전월(7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대전시 용역 수의계약 관련 보도> 대전시 용역계약 10건중 9건이 수의계약이라는 보도는 언론의 역할을 잘 보여준 사례인데 축제 용역 관련해서 비슷한 이슈도 있고 제보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심도있게 취재하면 좋을 듯함.	대전시 수의 계약 건 관련해서 제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 내부에서도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특정 제보가 있다면 활용해서 보도할 예정. <23. 8월 조치>	'22.7월
보도	<수해 피해보상 관련 보도> 충남도의 수해피해자 지원 대책이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2020년 용담댐 수해피해 분쟁 조정도 안됐는데 피해 복구 관련해서 집중할 부분이 원지 보도해 주었으면 함	지자체들의 포플리즘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충남도가 재난지원과 부족분은 성금 모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추적 보도할 예정. <23. 8월 조치>	'22.7월
보도	<사전 주의 예고 보도> 재난 보도시 평소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예고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올해는 산불 이후 산사태와 관련해 예고 뉴스를 계속 해왔고 앞으로 태풍도 있으니 그런 걸 감안해서 예고 보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음. <23. 8월 조치>	'22.7월
보도	<백선엽장군 친일기록 관련 보도> 보훈부 신임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는데 광복회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선명하게 보도해 주었으면 함	단신기사로 보훈부에서 친일 삭제하기로 했고 광복회 입장만 전달했는데 조금 더 논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23. 8월 조치>	'22.7월
교양	<미술 관련 공익캠페인> 지역에서 이사나 개업시 그림을 선물 하자는 캠페인을 방송함으로써 지역 미술시장을 키우고 다양한 예술들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었으면 함	금강미술대전,아트앤미디어대전 개최 등 대전MBC가 지역 언론사중에서 미술 사업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음. 공익성과 도시의 정체성들을 영두에 두고 중앙기 프로젝트로 기획해 보겠음 <23.8월 조치>	'22.7월
교양	<전시회 소개 프로그램> 전시회 소식을 전할 때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고 왜 이런 전시회가 열렸는지 깊게 다뤄주면서 일반인들이 예술 감각을 넓힐 수 있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	매주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한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심도 있게 다룰지 고민하겠음. <23. 8월 조치>	'22.7월
교양	<재난 관련 안내 방송> 장마시 반 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대피요령만 나오는데 이번 지하차도 인명피해가 많았으니 관련 지하차도 대피 요령도 안내해 주었으면 함	라디오 재난방송을 들으신 것 같은데 재난시 행동 요령에 대해 계속 방송하고 있음. 시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음. <23. 8월 조치>	'22.7월

교양	<오늘M> 다채롭고 가볍고 깊이 있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생태, 기후, 인권 등 여러 문제들도 선도해 주었으면 함	<오늘M>이 다채로운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지역 소식과 전국 소식을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었으면 함 <23. 8월 조치>	'22.7월
교양	<어휘 선택의 적절성과 서술의 마무리> <오늘M> 공주 옥룡동 수재현장 인터뷰에서 '막막하다'는 맥락에서 '척척' 해낸다는 표현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얼굴은 밝아 보여'라는 표현은 어긋난 표현으로 보임	내러티브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든 PD든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살펴해보도록 하겠음. <23. 8월 조치>	'22.7월
기타	<시청자의견 답글 관련> 천안지역 흑성산 UHD방송은 언제 들어가는지?	천안지역(흑성산)은 23년에 UHD 전환 예정이고 방송사 경영 환경과 여러 이슈로 다른 지역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 빠른 시일안에 UHD 전환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방송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 8월 조치>	'22.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8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3.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대전시 행정부시장 명예퇴직 보도> 행정부시장 명예퇴직 신청 보도가 선거 운동을 간접적으로 홍보해 주는게 아닌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방문객 수 보도> 방문객 집계 보도를 할 때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기지국 접속기록을 파악하거나 구글,네이버 빅데이터 등 유입량 예측을 트렌드에 맞게 보도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0시 축제 행사 보도> 1. 축제 앞면에 보이는 좋은 모습 이면에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다른 피해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보도 필요 2. 행사장 주변 교통 문제와 인원만 보도할게 아니라 노점 도시를 탈피하기 위한 애정 있는 행사 보도도 필요	회의록 첨부	○		
보도	<대전시 브랜드 관련 보도> 다양한 브랜드들이나 정체성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당위적인 얘기를 말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월평동 주거환경 개선 보도>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인터뷰할 때 거리 공연이나 한마음축제 등 문화정책만 얘기했는데 대안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	회의록 첨부	○		
보도	<장애인 일자리 보도> 장애인 일자리 관련 보도를 할 때 정부출연연구소들의 R&D예산 요구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계해서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전국뉴스 중복 배치> 중요한 사건의 경우 전국 뉴스에 나가고 또 바로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지역 뉴스에 나가는 경우 배치와 차별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연중캠페인> 연중캠페인이 매월 1일과 15일 두 번씩 올라오는데 8월에는 15일 이후 올라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회의록 첨부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건강플러스 - 출연진과 주제> 1. 의사 한분만 출연하는데 보조진행자로서 다른 의사도 출연하면 더 부드러운 진행이 될 것 같음. 동영상 그래픽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함 2. 어른 중심의 다양한 정보 제공은 좋는데 청소년 정신건강과 어른들 정신건강까지 다뤄주면 좋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지역 소상공인 관련 콘텐츠> <오늘M>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주기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광복절 특집 프로그램> 광복절 관련해서 독립투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것 같음.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게시판 의견 관련> 뉴스에서 '한국타이어'를 '한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표준말을 사용해 주기 바람	줄임말이 아닌 표준말을 사용하겠음	○		

2023년 8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3년 8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지금부터 8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분 참석하시는데요. 두 분이 조금 늦으신다고 해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왔던 안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라온 의견은 총 4건으로 의견 조치 미흡에 대한 불만이 1건 있었고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의견 1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제보 1건, 뉴스에서 표준어 사용 요청 1건이 있었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더위가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제부터 잠잘 때 에어컨을 끄는데요. 어쨌든 힘들고 긴 여름이었고 일도 많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요. 경청하면서 고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다음은 시청자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해외 일정 때문에 못 오셨고요. 부위원장님은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실 위원을 호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복 위원

연장자이신 윤지석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윤지석 위원장 직무대행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시청자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인 분도 있고 비전문가인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진희 위원

그동안 어떤 의견을 낼 때 가볍게 냈을 수도 있고 해야만 하니까 했었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데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고민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사M이라는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M>과 뉴스를 훑어보았는데 뉴스는 8월 초반에는 더위와 관련해서 수해 이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고 그 피해가 극복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송촌동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교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취재해 주셔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내용들에 공감을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난달에도 애도할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M>은 지난달부터 챙겨보기 시작했는데 몰아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그 내용들이 TV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미디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그리고 중년 이상이 보는 매체라고 한다면 조금은 고민하고 매번 반복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철학적 고민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먹고 즐기고 노는 가벼운 분위기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청률에는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영 미디어의 고민이라고 하면 매번 반복되는 일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들 인권의 문제나 교권 문제들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석 위원장 직무대행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사회적 시각 구조가 이진희 위원님, 이인복 위원님이 보는 시각 구조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이 어떤 때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마 MBC측에서도 이것을 고려하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부위원장님 도착하셨으니까 진행을 넘기고 제가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율, 책임, 품위, 단합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보도와 프로그램에 있어서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천년대로 오면서 품위가 올라가고 있는지, 한국이라는 분열된 사회가 얼마나 단합하고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을 내유 같이 가유>를 볼 때마다 인간이 이렇게 따뜻하거나 하는 인간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양 수해 복구 현장, 삼계탕 나눔 봉사, 대전 장애인 차인홍 교수 등 감동적인 부분이 좋았습니다.

<건강플러스>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울의 빅5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초토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도 맹장, 위암, 유방암, 직장암에 걸릴 수 있는데 지방에서 커버를 해줘야 하는데 1기 2기조차도 서울로 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의료가 퇴보되고 있거든요.

<건강플러스>에서 자궁근종, 탈장, 뇌혈관 질환 등을 다루면서 지역 병원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구나 라고 알려주는 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나오는 의사 선생님 한 분과 내방자 이렇게 두 분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탈장이란 대전시내 탈장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있을 텐데 한 분만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 의사사회에 협조를 받으면 보조진행자로서 의사 선생님이 같이 나오면 조금 더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복장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입고 나오면 딱딱한 분위기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양복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동영상이라든지 그래픽이 예전에 TV에 나올 때와 똑같아요. 서울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파 낭비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결국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건양대, 을지대, 성모병원이 나오는데 대전 의료에 가장 핵심인 충남대 병원 의사 선생님도 나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민의 왜곡, 선거구 조정 필요’라는 뉴스가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는데 대전 국회의원 숫자가 광주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광주는 인구가 142만 명에 국회의원 수가 8명인데 대전은 144만 명에 국회의원 7명입니다. 오히려 1명 적습니다. 이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대전시 국회의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여, 야 정치적인 부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은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은표 간사

대전이 광주하고 인구수가 비슷한데 선거구가 나눠 있어서 보통 서구랑 유성구 쪽에서 합의해서 하나를 더 만들자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윤지석 위원

네 그냥 대전이 명칭해서 한 명이 적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선거구 상한선이 27만 1042명, 하한선이 13만 5,521명 선에 있기 때문에 대전은 인구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광주는 어떤 지역구는 높게 몰려 있고 어떤 지역구는 적다 보니까 거기는 8명이라는 숫자를 그 법에 의해서 충분히 받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대전은 7명인데 20만 5천 명당 1명이고, 광주는 17만 7천 명, 부산은 18만 3천 명, 대구는 19만 6천명으로 대전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어요. 대전의 지역 정치 현황을 위해서 대전MBC에서 뉴스가 나왔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보도 그래픽은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대전시 행정부시장 명예퇴직 신청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선거법에 맞는 건지 미리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해주는 게 아닌지 시청자 위원으로서 볼 때 불법 선거운동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궁금합니다.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이 다음 달 4일인데 49재 추모 방식 대전은 어떤가하고 인터뷰를 받게 있는데 ‘상처가 다시 신뢰 회복’으로 가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 사회가 갈등 구조로 가고 있는데 교육은 삼위일체잖아요. 학교에 자녀만 맡겨 놓으면 교육이 끝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는 뉴스 편집보다는 가능하면 회복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편집을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네 다음은 이인복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인복 위원

일전에 제가 미술품으로 한번 선물해 봅시다. 이런 캠페인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문화예술 관련된 기관에서 토론회나 좌담회를 하면서 시장이 커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면 대전에서 이런 캠페인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다들 대박이라고 하면서 대전 정말 멋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전달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대전 0시 축제가 있었는데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대전시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그대로 그냥 내보내는 듯 한 느낌... 물론 대전MBC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뉴스 중에 '대전을 찾아간 사람이 1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라고 단정을 했는데 과연 그런 표현이 맞는 건지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110만 명이 다녀간 거라고 합니다.' 하고 인용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0시 축제에 대해서 그 정도 인원은 허수다 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언론에서 그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단정지어줄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과연 0시 축제의 앞에 허울 좋은 모습 이면에는 그 주변 상인들의 다른 피해는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내년 0시 축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났어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박주영 위원
다음은 장래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래숙 위원
뉴스를 너무 잘 보고 있고요. 너무 잘 해주셔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휴먼 다크 <살맛나는 세상>을 보다가 너무 괜찮아서 홈페이지를 보려고 봤더니 다시 보기에는 없더라고요.

이은표 간사
<살맛나는 세상>은 외주프로그램이라서 저작권 문제로 다시 보기를 못합니다.

장래숙 위원
너무 재밌게 봤어요. 휴먼 다크멘터리를 또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계속 휴먼 다크쪽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장날>같은 살맛나는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9월에 다시 시작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달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잖아요. 근데 광복절 관련해서 독립투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 했는데 못 본 것 같아요. 타 프로그램에 충남의 독립 운동가를 방송하는 걸 보고 MBC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얼마 전에 모 여고생이 투신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계에서는 자살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집중크리닉도 하고 있고 자율신경 분석 진단기를 구입해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기기 분석 검사도 하고 있는데 <건강플러스>를 들어가 봤더니 어른 중심의 다양한 유용한 정보들을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현대인들은 정신 건강에 대한 해소 방법들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정신건강과 플러스해서 어른들 정신건강까지 실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 위원
네 다음은 김정동 위원님 의견 주시죠.

김정동 위원
한 달 정도 외국에 있다 지난주에 귀국해서 뉴스는 몰라서 <오늘M>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번 주에 봤던 걸 말씀드릴게요. 시사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계속 채워주고 있었던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도 여전히 잘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7~8월에 현장 '이슈 앤 현장'이 추가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다루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짧지만 필요한 그리고 현장과 가까운 지역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셔서...

예를 들면 대전역 불법 주정차라든지 키성장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준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새로 런칭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큼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보니까 세 가지 꼭지로 이루어져 있던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보도 있고 'PD가 간다'도 있고 지역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도 있던데 매주 만들어 가는 게 인력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잘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주의 깊게 보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박미숙 위원
저도 연중캠페인 <힘을 내유 같이 가유>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나오는 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봉사는 못하지만 시청하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1일, 15일 업로드가 되는 것 같은데 8월 1일자에 청양 수해 복구 자원봉사가 업로드 돼 있고 15일자는 아직 업로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일 자는 언제 업로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9월 1일인데 9월 1일자로 업로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M>에서 2023국제와인엑스포를 홍보하는 내용을 봤는데 대전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는 다른 해보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콘텐츠를 많이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콘텐츠를 홍보하면서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외국바이어들과 같이 매칭해서 미팅도 하면 대전 경제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대전에 좋은 와인 축제도 있어' 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광고가 많이 되었으면 하

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축제뿐만이 아니라 대전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집중 취재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대전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축제가 있구나', '한번 저기 가봐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가 새로 바뀌었다고 공지사항에 올라왔는데 새로 바뀌면서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 불편한 점은 없는 것인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것을 시청자들한테 잘 공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님 의견 들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앞부분 내용을 잘 못 들어서 혹시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난 시청자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월평동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다음 날 바로 기자분에게 연락이 와서 취재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논의도 하고 고민 있는 부분들도 전달해 드렸는데 관련 보도를 잘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월평동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다시 복구하는 책임 소재가 서구청에 있지만 대전시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정책적 대책들을 얘기할 때 대전 서구 문화체육과장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근데 문화체육과장이시다 보니까 관련된 정책이 거리 공연이나 한마음축제를 하면서 월평동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하고 끝났어요.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안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이 거의 없거나 혹은 사실상 안 다뤄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아마 대전시가 인터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주 전에 '대전은 성심당의 도시 다양한 명소 키워야' 라는 기사를 봤는데 문화 예술이나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대전이 성심당의 도시다' 라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나 정체성을 키워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십 몇 년째 그냥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이 기사 인터뷰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전문가분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내용이 매년 똑같아요. '지역 정체성에 맞는 지역만의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 내용만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가족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하나하나 하는

얘기를 뭐 하러 맨 날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당위적인 얘기를 말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보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충남 아산에 발달장애인분들을 고용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내용도 너무 좋았고 사실 인터뷰하면서 제가 보기 좋았던 건 중간에 그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발달장애인분이 계셨는데 발달장애인이 말씀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더듬고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를 안 끊고 끝까지 듣더라고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발달 장애인분이 말씀 다 하시고 밝게 웃는 표정까지 그 기사에 다 담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지만 굉장히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과학계에서는 R&D 예산 축소에 반발이 많은데 아까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다른 생각이 들었던 건 장애인 고용 부담 관련해서 민간 기업이 해야 될 역할도 많지만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대전에 있는 출연연들이 대부분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제대로 안 지켜서 매년 벌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걸 벌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하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5년 동안 낸 고용부담금이 22억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안 생기다 보니까 이걸 몇 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연연들이 R&D 예산을 요구할 때 본인들이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일자리 보도를 보고 이 출연연 R&D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보면서 조금 불편한 감정들이 들긴 하더라고요. MBC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런 의무감들을 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인데요. 만약에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보도를 또 하시게 되면 출연연들이 매년 내고 있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관련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ETRI 뿐만 아니라 화학연구원도 5년 동안 11억 정도 고용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오늘의 면접' 인터뷰를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속도감이 생긴 게 보였습니다. 특히 9화에 총무타올 회사 직원분들을 인터뷰 하셨는데 그 회사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또 생산직으로 일하시는 나이 드신 노동자분들도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세대의 노동자분들이 그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고 얘기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 화였던 대전시체육회 부분은 태권도 선수였던 이대훈 선수도 면접관으로 같이 나오셔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긍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진행하시는 분이 워낙 유쾌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저는 주로 뉴스를 봤는데요. 아까 광복절쯤에서 특별히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던 건 아닌데 뉴스 기획 보도로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2회 정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쟁점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좋았고 또 8월 15일 당일에는 일제 청산이라고 해서 일본인 재산 국가 귀속하는 걸 왜 여기서 하지 했더니 조달청에 아마 국유재산 관리과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사안을 보도를 해 주셔서 지역의 쟁점하고 시기도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사건 사고 보도 관련해서는 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고 관련해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연속으로 대전 뉴스 첫 부분에 항상 배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상이 원인이다', '뭐가 아니었다' 이게 계속 첫 부분에 며칠 연속으로 나왔던 것 같아서 대전 뉴스가 시작됐을 때 시청자들이 약간 이런 부정적인... 물론 그게 워낙 핫이슈였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비중 있게 다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증도... 뒤에 실험 사건도 있었는데요. '실험 못 찾고 있다', '도주했다', '실험 용의자 파악이 안 된다' 그 방송도 며칠 연이어서 앞부분에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원래 MBC 전국 방송에서 다뤄질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송촌고등학교나 실험에 대해서 대전MBC가 보도하는 그날 뉴스에 전국 MBC 방송에도 보도가 됐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차별화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배치를 할지가 약간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고 어쨌든 중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연이어 계속 그걸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데 첫 부분에 다룬 것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예고글 많이 올리고 있는데 검거를 어떻게 했다 라는 보도도 다 검거가 되고 있다 라는 인식을 주는 거고 또 이렇게 검거가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배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달아주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방지하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검거가 된다' 라는 것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찰청에서 어떻게 검거가 되는지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검거가 된다는지 검거 방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글을 올릴 때 내가 설마하면서 청소년들이 글을 올리는 거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거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보도가 됐더라면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시 축제 관련해서 이인복 위원님은 너무 부풀리지 말고 비판할 부분을 비판해야 된다. 그런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살짝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대전이 워낙 노잼 도시여서 0시 축제가 잘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외로 사진을 보면 사람들

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0시 축제에 사람이 이렇게 왔었다'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던 거예요. 물론 문제점을 당연히 언론이니까 보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뉴스에서 아예 교통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주변에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데 뭘 해결이 잘 안 된다' 아예 그날은 그것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나도 영시 축제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대전에 대한 애정도가 뉴스속에 녹아 있었다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만의 콘텐츠가 없었다라고 마지막 끝나는 날에도 보도를 한 번 하셨는데 그런 비판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다 잘 됐다고 박수 짹 짹 치고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지적돼야 되지만 축제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있어서 또 첫 축제이다 보니 대전이 특별히 노잼 도시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MBC의 애정이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들었고요. 대전MBC 답변 듣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보도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7월도 그랬지만 8월에도 다행히 태풍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해가 있었고, 올해 새로 등장한 용어가 있죠. 집중호우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극한호우라는 말을 써야 될 정도로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국지성 호우들이 산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가을 추석쯤에 태풍 한두 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보도 같은 경우에는 인력 문제를 떠나서 사고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힘들더라도 면밀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뉴스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선 관련 보도 관련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돌발성 보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관련 이슈들이 재점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획 보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선거구 책정 문제 같은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지역 공약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사실 주된 부분들이거든요. 공약이 공약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의 뒷받침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검증을 해볼 생각이요 계기가 된다면 여론조사도 독자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과거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만 보통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에 대한 반응들이 그동안 선거 구도였다면 저희가 시도했던 것들은 유권자 권한으로 공약을 역으로 후보들한테 물어보는 새로운 유권자 참여형 뉴스들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기 때문에 대단한 결과를 낳은 건 아닙니다만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시장 뉴스는 선거 홍보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예퇴직을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부시장이 대전시의 중요한 인사이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 대해서 생략한 채 내보내면 오히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단신 처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홍보해 줄 목적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회복 관련해서 적합한 인터뷰를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인터뷰를 5분~10분 정도 해도 뉴스에 나가는 건 15초에서 17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인터뷰를 발췌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짧은 인터뷰지만 뉴스 길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같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발췌하고 있습니다.

0시 축제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 문제에 대한 보도는 당시 문제뿐 아니라 실제 교통이 불편이 야기가 되고 대안을 준비하지 않은 채 축제를 시작한 미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0시 축제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것들이고요. 그 이후에 축제 성과에 대한 분석들...축제가 대전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대전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없습니다. 항상 고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될까 하는 고민인데 대전을 상징하는 부분들을 개발해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해답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시 축제 지원 관련해서 축제를 기획하면서 조금 무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단독 꼭지로 보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월평동 화상경매장 관련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유념하겠고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보도들 말씀하셨는데 기자가 아이টে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을 때 좋은 인터뷰가 나오고 그 인터뷰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당 기자가 그런 부분에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심당의 도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답이 애매합니다. 사실 지역 브랜드를 키운다는 얘기는 수차례 반복됐고 저희 뉴스뿐만이 아니라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십 수년간 아직도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0시 축제라는 것이 대전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사실 과학기술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을 브랜드화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그

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ETRI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고용 문제는 공공기관들이 도외시하는데 해마다 국감의 단골 이슈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만큼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좀 더 관심 갖고 저희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계획성 보도를 주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좋은 정책이라든지 개선돼야 될 지점들이 있다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 관련 보도는 광복절과 연관된 이슈는 아니지만 이 뉴스는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해당 기자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일본의 관음사 주지하고 직접 인터뷰가 성사돼서 그 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고 쟁점이 이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 불법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복절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주목을 하고 다뤄나갈 생각입니다.

사건 보도는 사실 고민입니다. 사건 보도를 하게 되면 저희 보도 때문만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마는 유사한 범죄들의 모방 범죄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는데 칼부림 사건은 최초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목이 된 부분이 있어서 뉴스를 했고요

서울 메인 뉴스가 나가게 되면 이것을 지역 뉴스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고민입니다. 뉴스 데스크는 타이틀로 다루지 않고 바로 릴레이를 받아서 로컬 뉴스를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전이나 세종 충남의 중요한 이슈들은 서울에도 나가고 대전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뉴스를 서울로 올리면 기사에 대한 수정이 서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테일을 살리는 방향으로 차별화해서 보통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사고가 급박한 경우에는 같은 뉴스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차별화 하는 방향으로서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서울에서 나간 뉴스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변형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시간대가 다른 뉴스는 새롭게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 뉴스선상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볼 때도 같은 뉴스 아까 봤는데 또 나간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해당 이슈가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예전에는 한동안 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이 편성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아이টে이 5번이었다가 갑자기 20번대로 밀려버리면 저희가 뺐을 경우에 서울도 안 나가고 저희도 안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중복 편집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들죠. 서울에서 15번째 꼭지 나갔는데 저희가 17번째 자르고 들어가서 바로 나가는 경우는 방금 2분 전에 나간 뉴스가 또 나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시간이 된다면 편집을 새롭게 하거나 서울에서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편

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연중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8월 후반부는 제작 지원 문제 때문에 제작을 안 했고요. 9월 1일부터는 벌곡면 주민자치회가 벌곡제빵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나누고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데 그 아이টে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송출되면 바꿔놓겠습니다.

<건강플러스>의 보조 진행자를 의사로 가는 부분과 의사가 가운을 입고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속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입고 진료하시는 데 스튜디오까지 그렇게 하면... 제작진의 판단이긴 하겠지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제공받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저희가 영상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걸 동영상으로 제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더 병원쪽에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픽은 인력이 사실 결원 상태라서 고민 중인데 콘텐츠 질적 차원에서 있는 재원속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플러스>가 재원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병원이 출연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이나 스트레스와 관련한 정신건강 아이টে을 다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신건강이라는 게 영상으로 구현해 내기가 힘든 질환이라서 적당한 시기에 아이টে으로 다뤄보도록 제작진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영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 관련된 콘텐츠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면접’을 포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자주 소개하고 지역 경제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면접’ 인터뷰도 더 다양해지고 잘 보셨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작 분량이 8회 정도 남았는데 좀 더 다양한 직종 그리고 다양한 사업장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31일부터 자체 개편을 진행하는데 크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신설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것과 MBC충북과 공동 제작 후 지역사와 교환 예정인 휴먼다큐 그 두 가지가 중점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편성국이 중심에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김환균 사장

광복절 특집 관련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이상욱 편성국장

광복절 관련해서 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광복절 특집 프로그램은 5월부터 상반기까지 준비를 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세 개의 조국>이라는 콘텐츠로 원래 계획은 광복절 초반에 전국 방송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저희 내부 제작진 사정으로 PD가 바뀌면서 다음 달 창사 때 선보이는 걸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추석 즈음해서 창사 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표 간사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올라오는 건 저희가 체크해서 빠진 게 없이 잘 처리하고 있고요. 아까 홈페이지 리뉴얼 이후에 불편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불편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 홈페이지 사용하시던 분들이 새로운 홈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은표 간사

공지사항 제일 상단에 있는 내용은 최근내용이 아니라 2019년도 개편하면서 당시에 올린 내용으로 아직까지 불만 접수는 없었고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박주영 위원

태풍 보도할 때 언젠가 나가신 분이 옷도 젖고 머리도 젖어 있고 그걸 찍고 게시는 촬영팀도 있으실 텐데 참 애쓰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0시 축제인데요. 앞에서 방향성에 대한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역에서 이런 큰 축제들이 있을 때 주요 성과들이나 자랑거리들을 주로 방문객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전시도 이번엔 그랬고 9월에 신용카드 매출 관련해서 경제 효과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신뢰도가 잘 안 가거든요. 0시 축제만이 아니라 어떤 거든지... 왜냐면 제가 0시 축제를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 제가 실제로 체감하는 내용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빅데이터에서 오픈된 데이터들을 보니까 실제로 대전시에서는 70%가 외부 유입객이라고 했는데 대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검색량이 거의 없었어요.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어떤 식

으로 이 축제에 대한 바이럴이 생겼고 또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유입량이 됐는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0시축제만이 아니라 다른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을 보도할 때도 외부에서 봤을 때 보도의 방향이나 성과를 바라보는 방향들이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윤지석 위원

0시 축제장 제일 가운데에 제가 있는 건 아시죠? 중앙로를 9일 동안 막고 영업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얘기는 첫 번째 하면 안 되는데 환자분들이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골프장에 가면 조그마한 카트 있잖아요. 또는 전기차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낮에는 대전역에서 도청 사이를 왕복하는 셔틀로 만들어 놓으면 환자분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0시 축제는 이번 시장님이 계신 동안 계속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고 신뢰도의 문제인데 대전은 원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뉴스를 보면 각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타 지역 사람들의 통신사와 거래한 량에 의해서 몇 만 명이 왔다고 추정하는데 그게 믿을 수 없는 게 작년 이맘때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올해 데이터로만 얘기하거든요.

대전에 원래 많이 와요.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 대비 환자 수가 17% 감소했고 수입은 25%가 감소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작년하고 비교해야지 그냥 기지국에 접속된 통신으로 110만 명이 왔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냥 믿을 수 있는데 적어도 보도를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라는 것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숙 위원

저는 0시 축제때 맥주 축제하는 대흥동 거리를 3일 내내 갔었어요. 춤추는 영상도 찍었거든요. 목포 맥주 축제도 말하고 갔다 왔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대흥동 거리에서 1km가 넘는 그 전체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긴 적은 대전에서 거의 50년 살았는데 별로 없거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MBC라면 <인생 내컷>이라는 다크도 새로 생기잖아요. 즐기는 사람들의 휴먼 다크문터리를 만들어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축제가 반드시 재미있을 수는 없는데 대전에서 그 맥주 거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서 즐기는 모습들을 내년에 <인생 내컷>에 녹여서 만들면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표 간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없으시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사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사실 1시간 남짓인데요. 국장님들 사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바쁘신 시간에 왔는데 이 1시간 남짓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MBC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오늘 0시축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PD출신으로 늘 이 축제의 콘셉트가 뭐냐 이걸 따져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영국 에딘버러축제 하면 아 거긴 뭐,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아 거긴 뭐, 보령의 머드 축제 여기도 다 있어요. 근데 많은 지역 축제를 보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여기 와서 판 벌렸던 사람이 이쪽에 가고 오일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명확한 콘셉트를 가져야 된다.

저는 솔직하게 제안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대전은 과학도시다. 과학에 집중해보자.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지난번 축제 왔던 게 여기 또 와 있고 이래요. 이러지 말고 집중적으로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 그제 반드시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들이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돈 풀어서 그 돈이 돌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0시축제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이장우 시장이 상당히 강조하면서 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거였고, 또 시민들도 그런 점에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5 특집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좀 더 세계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는 3.1절, 광복절 이런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건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해야 되고 네가 해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역사프로그램이나 탐사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보지 않으면 다 아는 이야기를 뭘 또 해, 근데 해보면 거기에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안 하나 혼내셔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망치잖아요. 그래서 이왕 몸

좋은 거니까 무조건 먹어라 그러면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전MBC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약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계기 특집이라는 게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방송은 폭발적인 시청률과 광고 판매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지극히 공영적인 콘텐츠들이 계기 특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자나 PD들의 역사에 대한 상상력들을 키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